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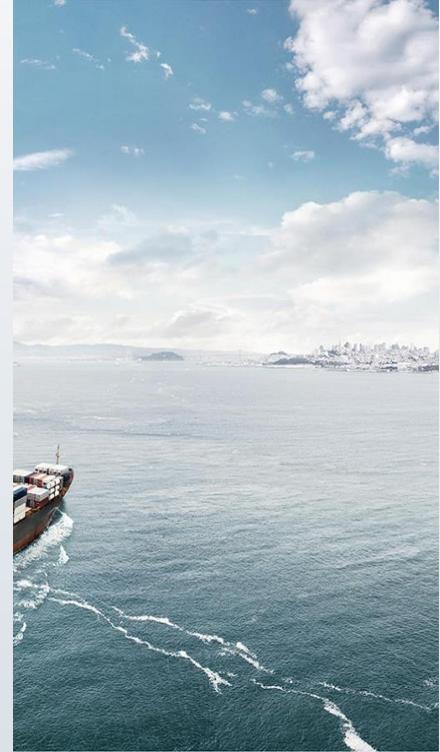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63

Updated August 28,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수주 가뭄'에도 파업 깃발 든 조선업계...28 일 총파업 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뒤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조선 빅 3'가 모두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조선업계가 본격적으로 파업의 깃발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협의회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임금이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서 "삼성그룹과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장 김명수 사장의 진전이 있는 결과물이 없다면 노동자협의회는 거제조선소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했다. 현대중공업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뒤 벌이는 첫 파업이다.

이달 28 일에는 총파업 공동투쟁에도 나선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 STX 조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공동으로 조선사업장 현안과 요구에 대해 발표하고 총파업 공동투쟁을 결의하며,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선다.

조선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 3사는 올해 상반기 발주량 급감으로 수주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선박 발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은 48억달러(잠정치)를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목표(159억달러)의 30%를, 대우조선해양은 27억 8,000만달러를 수주하며 목표(83억 7,000만달러)의 33.2%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만 42억달러를 수주해 목표치(78억달러)의 절반가량을 채웠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조선 해운업 경기가 얼어붙어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며 "회사가 살아야 직원도 산다는 마음으로 임단협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2. 스크러버 설치 지연에 불안감 커지는 해운업계

내년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배기가스 세정장치인 스크러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설치가 지연될 경우 선박 영업 공백이 장기화하고 스크러버 초기 투자금에 대체연료 비용 부담까지 3 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 21 일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유조선 전문 분석기관 알파탱커(ALPHATANKE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존선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 지연을 겪고 있는 선사는 미국 다이아몬드 S 쉬핑(DIAMOND S SHIPPING)으로, 자사 수에즈막스급 탱커 3 척에 대한 스크러버 장착 공사가 당초 올 4 분기에서 내년 1 분기로 밀렸다.

크레이그 스티븐슨(CRAIG STEVENSON) 다이아몬드 S 쉬핑 CEO 도 최근 이와 같은 상황을 인정했다. 그는 "백로그(아직 처리되지 않은 주문)로 예상했던 것 보다 비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S 는 이미 선박 2 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했는데 이 또한 평균 설치 기간으로 알려진 25~30 일보다 최소 2 주가 더 걸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는 다수의 선사들이 스크러버 설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으며, 설치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제기됐다. 선사들이 스크러버로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대응하는 것은 저유황유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현재 톤당 200 달러 수준인 저유황유가 규제가 발효 시점인 내년에는 4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국내외 선사들은 스크러버 설치를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다. 현대상선도 일찍이 연료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스크러버 설치를 서둘렀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는 신조선 20 척에도 모두 스크러버가 장착된다. 현존선 60 여척에도 스크러버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크러버 설치 지연 이슈는 업계의 불안감을 키운다. 또 당장 국제해사기구의 스크러버 표준 지침도 없는 데다 관련 기술이나 결함 등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스크러버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2020 년 이후에나 기술 효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이아몬드 S 가 겪은 스크러버 설치 지연 문제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환경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요소가 된다.

I . ISSUE & TREND

스크러버 설치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했을 경우 선사들은 스크러버 설치 비용과 더불어 대체 연료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선 현대상선은 스크러버 설치 기간 동안 생기는 선박 공급 공백을 대체선을 투입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단키로한 AEX(ASIA EUROPE EXPRESS)노선의 선박을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선박 대신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투입된 선박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 선박을 투입해야 하는데 선박 규모나, 물동량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미중, 한일 무역 분쟁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상황에 따라 대체선 투입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현대상선, 디얼라이언스 4 개노선 조기합류

현대상선이 내년 4 월 전략적 제휴 공식 활동에 앞서 디얼라이언스에서 운항 중인 유럽항로 서비스에 조기 합류할 예정이다. 대신 2M+H 체제에서 단독으로 운항해왔던 유럽항로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한다. 현대상선은 지난 17 일 부산 출항을 마지막으로 사선항로인 아시아·유럽익스프레스(AEX) 서비스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26 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2M 회원사인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와 선박 공동운항을 못하게 되자 지난해 4 월 4,600TEU 급 선박 10 척을 앞세워 아시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AEX 를 단독 취항했다. 서비스 초기 만선을 기록하는 등 기대를 모았으나 유럽항로의 고질적인 공급과잉과 운임하락으로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1 년 6 개월만에 서비스를 철수하게 됐다.

마지막 운항선박인 <현대컨피던스>호는 지난 17 일 부산항에서 마지막 뱃고동을 울렸다. 9 월 20 일과 26 일 사이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독일 함부르크항, 영국 사우샘프턴을 잇달아 찍은 뒤 뱃머리를 돌려 11 월 4 일 부산신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현대상선은 단독노선을 철수하는 대신 디얼라이언스의 유럽항로 4 개 노선 선박을 임차(슬롯차터)할 예정이다. 극동-유럽서비스(FE) 시리즈 중 부산노선인 FE2 를 비롯해 홍콩노선 FE3, 북중국노선 FE4, 동남아노선 FE5 다.

FE2 는 부산-칭다오-상하이-홍콩-옌텐-싱가포르-사우샘프턴-함부르크-로테르담-제벨알리-싱가포르-부산을 기항한다. 26 일 부산을 출항하는 <알다나>호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I . ISSUE & TREND

FE3 의 기항지는 홍콩-샤먼-가오슝-옌톈-로테르담-함부르크-앤티워프-르아브르-런던게이트웨이-싱가포르-홍콩 순이다. 오는 30 일 <와이엠원더랜드>호의 홍콩 출항이 현대상선의 첫 서비스다.

FE4 는 닝보-상하이-르아브르-로테르담-함부르크-앤티워프-사우샘프턴-옌톈-상하이-닝보를 잇는다. 첫 서비스는 29 일 닝보를 출발하는 <알즈메리야>호다. FE5 는 램차방-카이몹-싱가포르-콜롬보-로테르담-함부르크-앤티워프-사우샘프턴-제다-콜롬보-싱가포르-램차방을 서비스한다. 현대상선은 30 일 램차방을 떠나는 <원콜럼바>호부터 승선한다.

AEX 가 부산-상하이-닝보-옌톈-싱가포르-로테르담-함부르크-사우샘프턴-싱가포르-홍콩-옌톈-가오슝-부산을 기항했던 점에 비춰볼 때 현대상선은 디얼라이언스 서비스 합류로 유럽지역 기항지를 2 배 늘리게 됐다.

디얼라이언스는 10 월 말 현대상선이 참여하는 내년 기간항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정할 예정으로, 현대상선은 내년 상반기 인도받는 2 만 3,000TEU 급 컨테이너선 12 척을 디얼라이언스의 아시아-북유럽노선에 투입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IMO 국제협약에 따라 IMO DCS(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는 국내 해운사를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사용량 전자적 보고방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IMO DCS(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도)는 총톤수 5,000 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의 연간 연료유 사용량 등을 기국정부에 의무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로써, 국내 해운사는 선박연료유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올해부터 수집하여 2020 년 1 월에 기국정부로부터 지정된 IMO DCS 검증대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KOMSA 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IMO DCS 검증대행기관으로서, 국내 해운사가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WWW.SEM.GO.KR) 구축을 완료했다. 향후 우리나라 국적선을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내 해운사에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 및 검증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I . ISSUE & TREND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국내 해운사가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SEM)을 활용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연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전자적 보고 실습을 위해 참석자는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여야 한다.

설명회는 23 일 부산을 시작으로 28 일 서울, 30 일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KOMSA 홈페이지(WWW.KOMSA.OR.KR)를 통하여 설명회 개최장소·시간 확인 및 참석자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KOMSA 이연승 이사장은, “국내 해운사가 IMO DCS 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국내 해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IMO DCS 등 국내 해운부문 온실가스 관련 규제 이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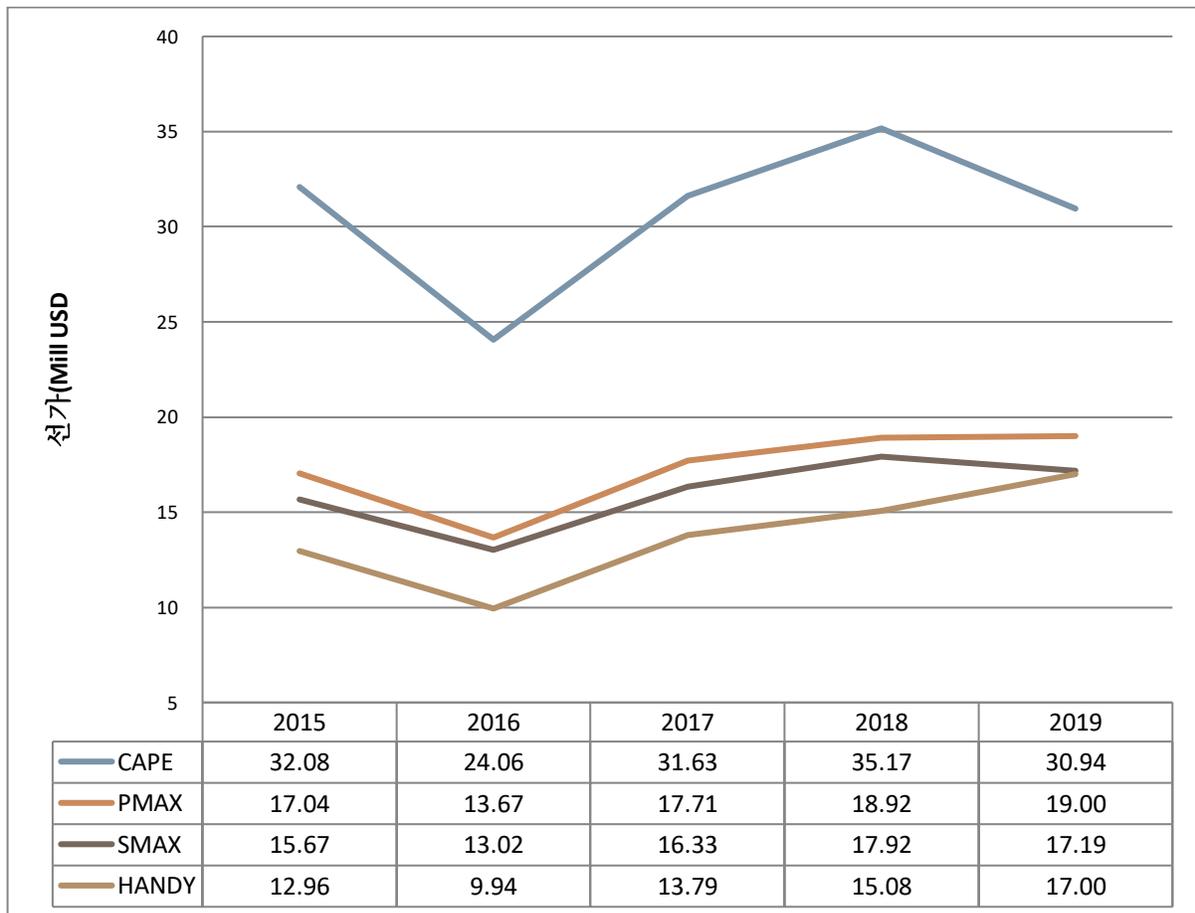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0.94
	-31.45%	-24.99%	31.43%	11.20%	-12.03%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19
	-36.04%	-16.91%	25.44%	9.69%	-4.09%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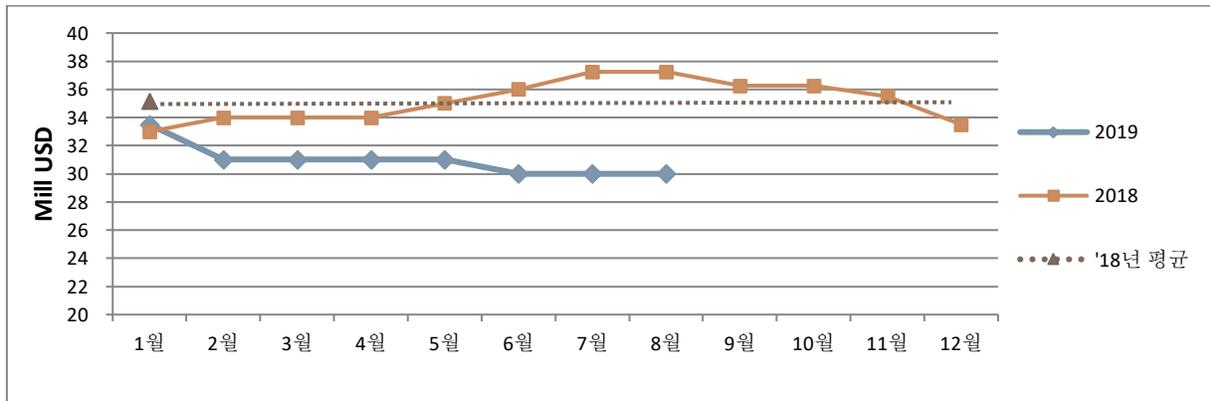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94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8.8%	-11.4%	-19.5%	-19.5%		-12.0%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13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0.0%	2.9%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5.6%	-2.8%		-4.4%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9.7%	6.3%	13.3%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37.25	37.25	36.25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5.50	16.00	15.00	15.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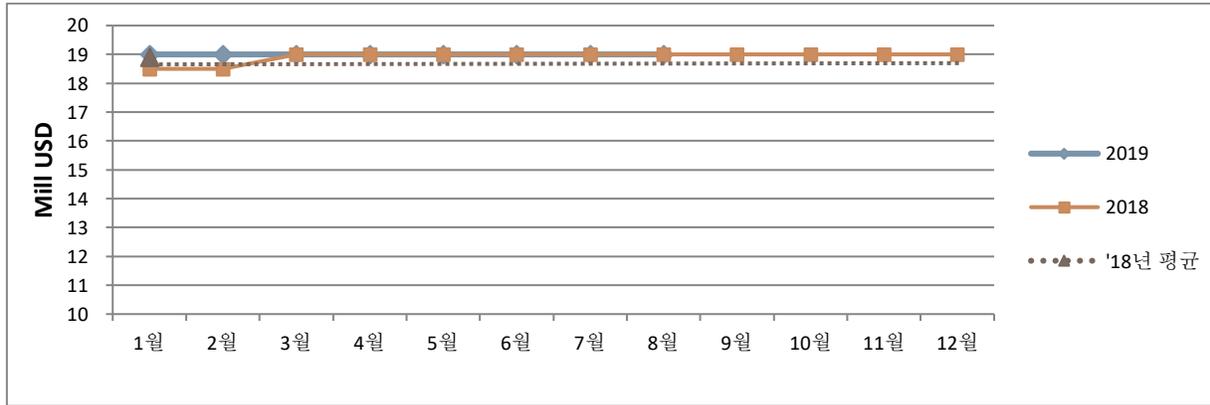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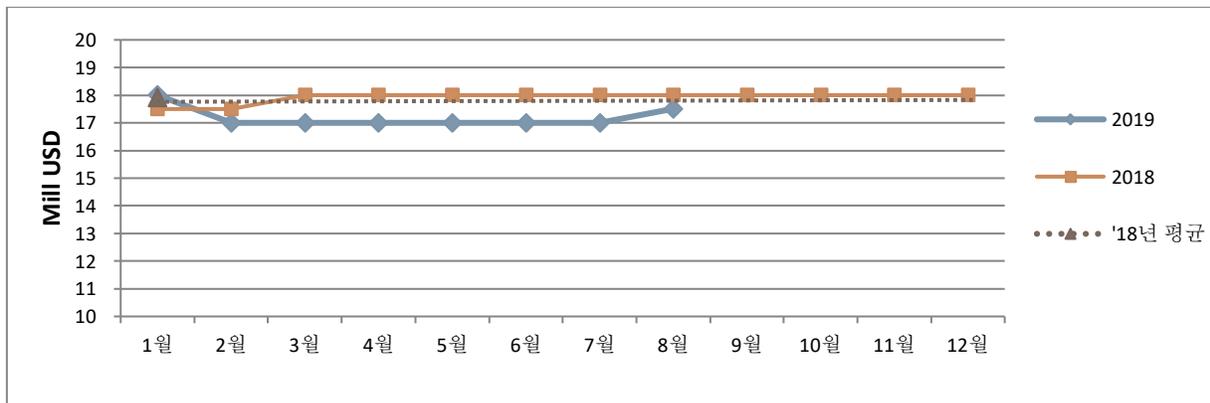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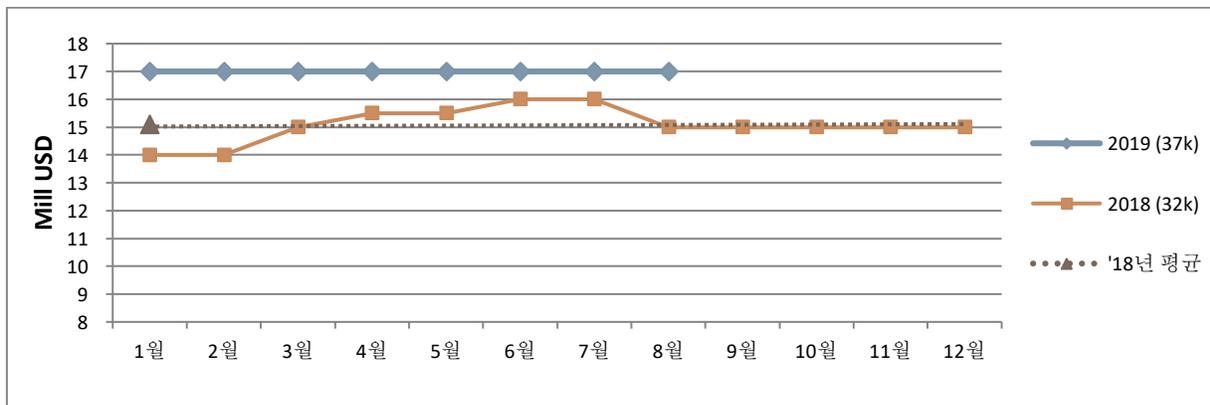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LILY FORTUNE	91,439	2000	JAPAN	MITSU		7	Chinese buyer
BC	ALAM PERMAI	87,052	2005	JAPAN	SULZ		10.8	Chinese buyer
BC	YARRAWONGA	82,624	2008	JAPAN	B&W		13.5	Undisclosed buyer
BC	BAHIA 1	82,250	2012	JAPAN	B&W		19.3	Asian buyer
BC	VAMOS	76,284	2004	JAPAN	MITSU	x	9.5	Undisclosed buyer
BC	BERGEN	60,319	2015	JAPAN	WART	C 4x30t	22	Greek buyer
BC	TEAM TANGO (log fitted)	23,573	2001	JAPAN	MITSU	C 4x30.5t	4.5	Undisclosed buyer
GC	DOGAN BEY	12,260	2003	JAPAN	MITSU	C 3x30t	3.4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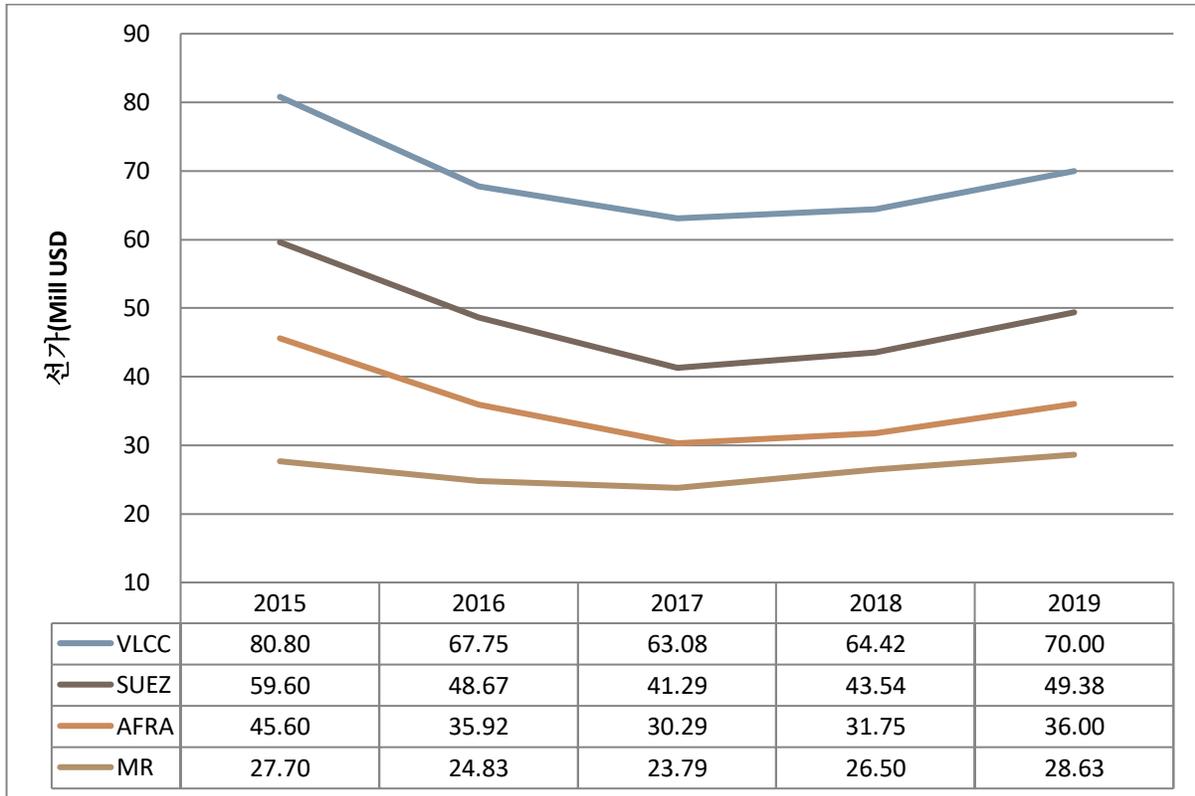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0.00
	9.04%	-16.15%	-6.89%	2.11%	8.66%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38
	17.32%	-18.34%	-15.15%	5.45%	13.40%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6.00
	17.83%	-21.24%	-15.66%	4.81%	13.39%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63
	2.97%	-10.35%	-4.19%	11.38%	8.02%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3
	-3.08%	10.45%	-10.78%	-5.20%	-6.28%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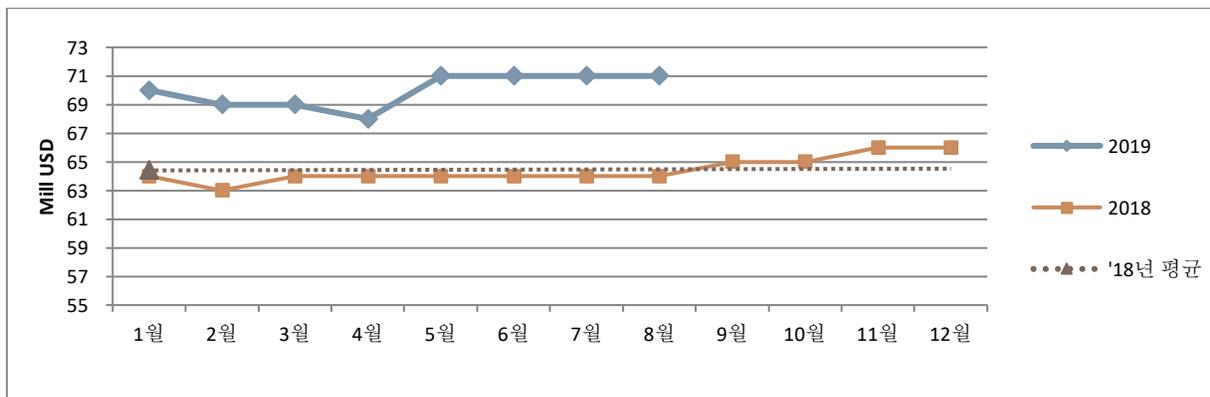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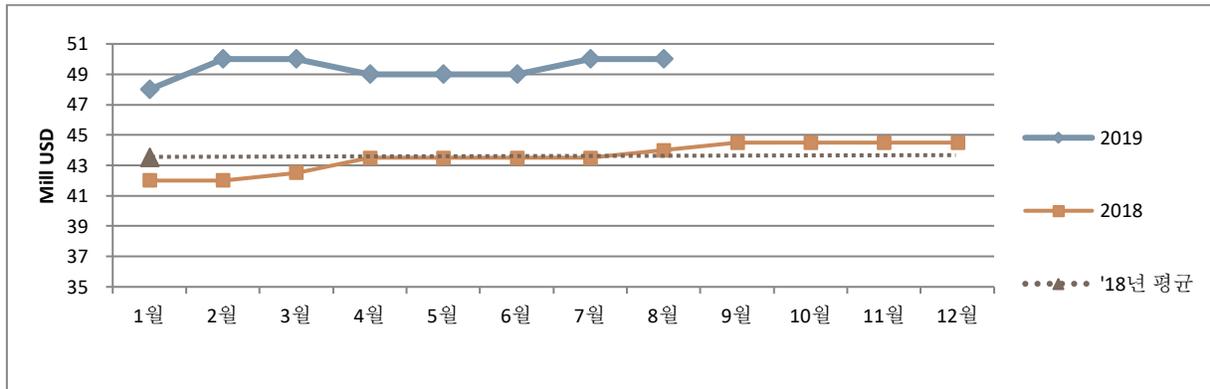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0.00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0.0%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10.9%	10.9%		8.7%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49.38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2.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4.9%	13.6%		13.4%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6.00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2.7%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8.8%	18.8%		13.4%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8.63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3.4%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12.1%	15.4%		8.0%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3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4.3%	-4.3%		-6.3%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75	26.00	27.00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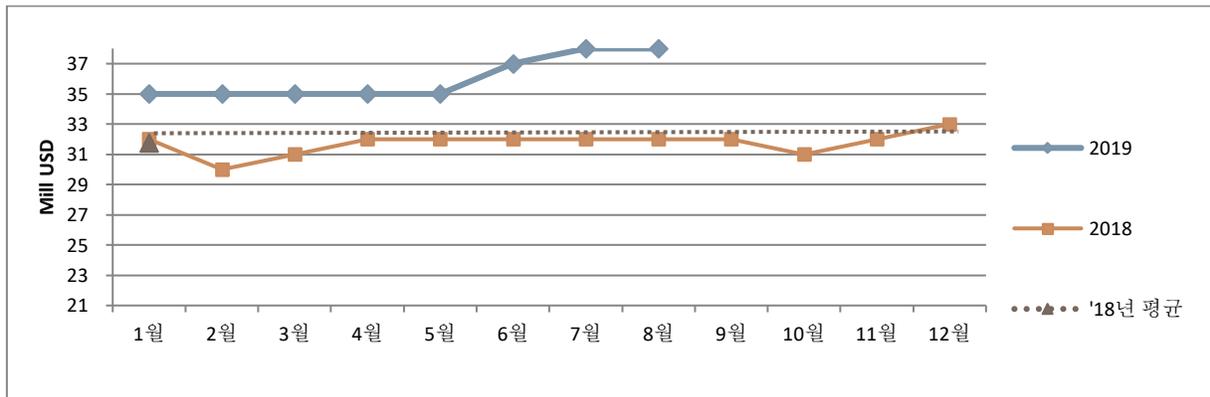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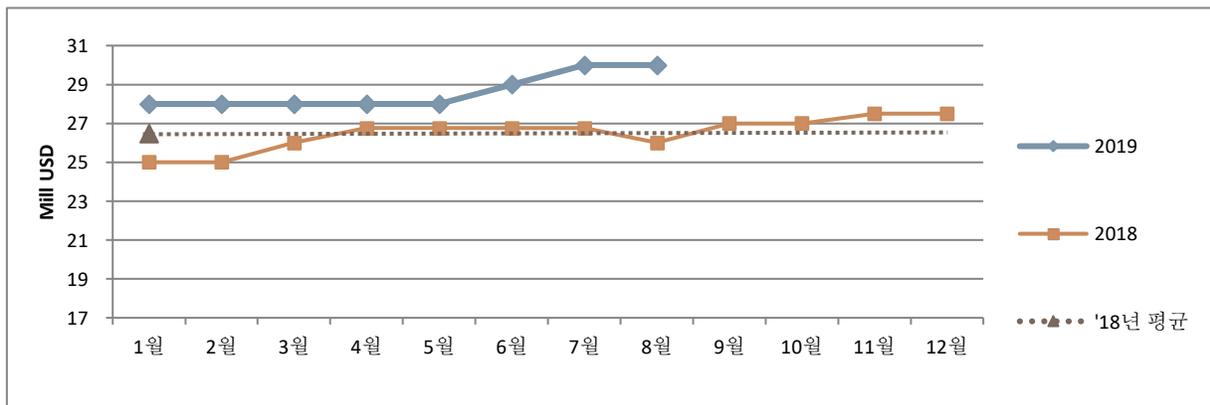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ORIENTAL JADE	306,352	2004	JAPAN	MITSU		29	Undisclosed buyer
TANKER	KALYMNOS	299,089	2000	KOREA	SULZER		25	Undisclosed buyer
TANKER	CERIGO	299,089	2000	KOREA	SULZER		25	
TANKER	BREEZY VICTORIA	74,998	2007	JAPAN	B&W		13.5	Greek buyer
OIL /CHEM	ATLANTIC LEO	49,999	2008	KOREA	B&W		16-16.25	Greek buyer
OIL /CHEM	ATLANTIC AQUARIUS	47,128	2008	KOREA	B&W		16-16.25	
OIL /CHEM	FPMC 19	46,851	2009	CHINA	B&W		11	Greek buyer (Centrofin)
OIL /CHEM	CAPE ESMERALDA	12,761	2004	KOREA	B&W	2	6	Undisclosed buyer
OIL /CHEM	CAPE EGMONT	12,761	2003	KOREA	B&W	2	6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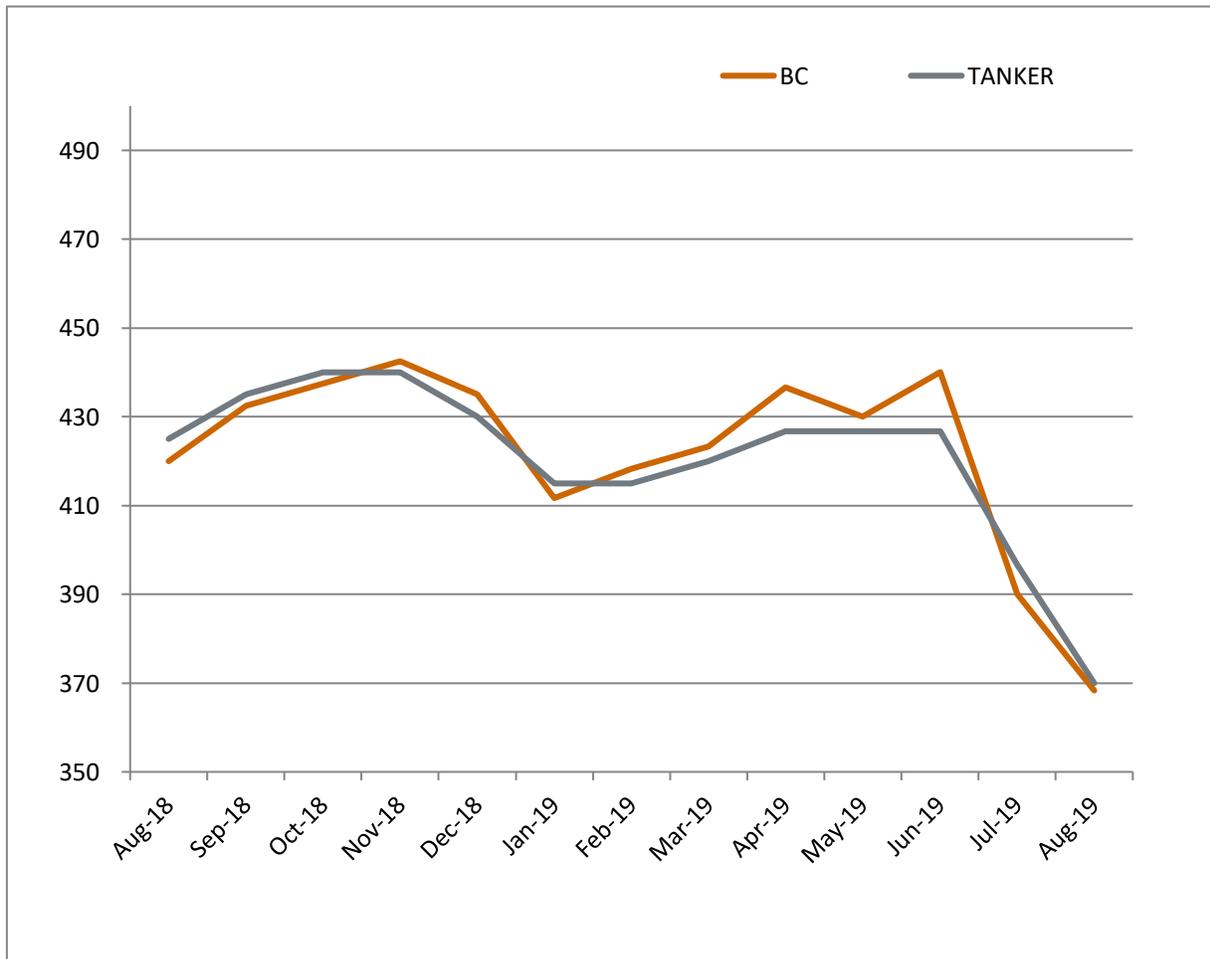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8 월	2019 년 8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12.08	-4.8%	425.00	370.00	-6.7%	-12.9%
BC	370.83	38.5%	440.63	18.8%	414.79	-5.9%	420.00	368.33	-5.6%	-12.3%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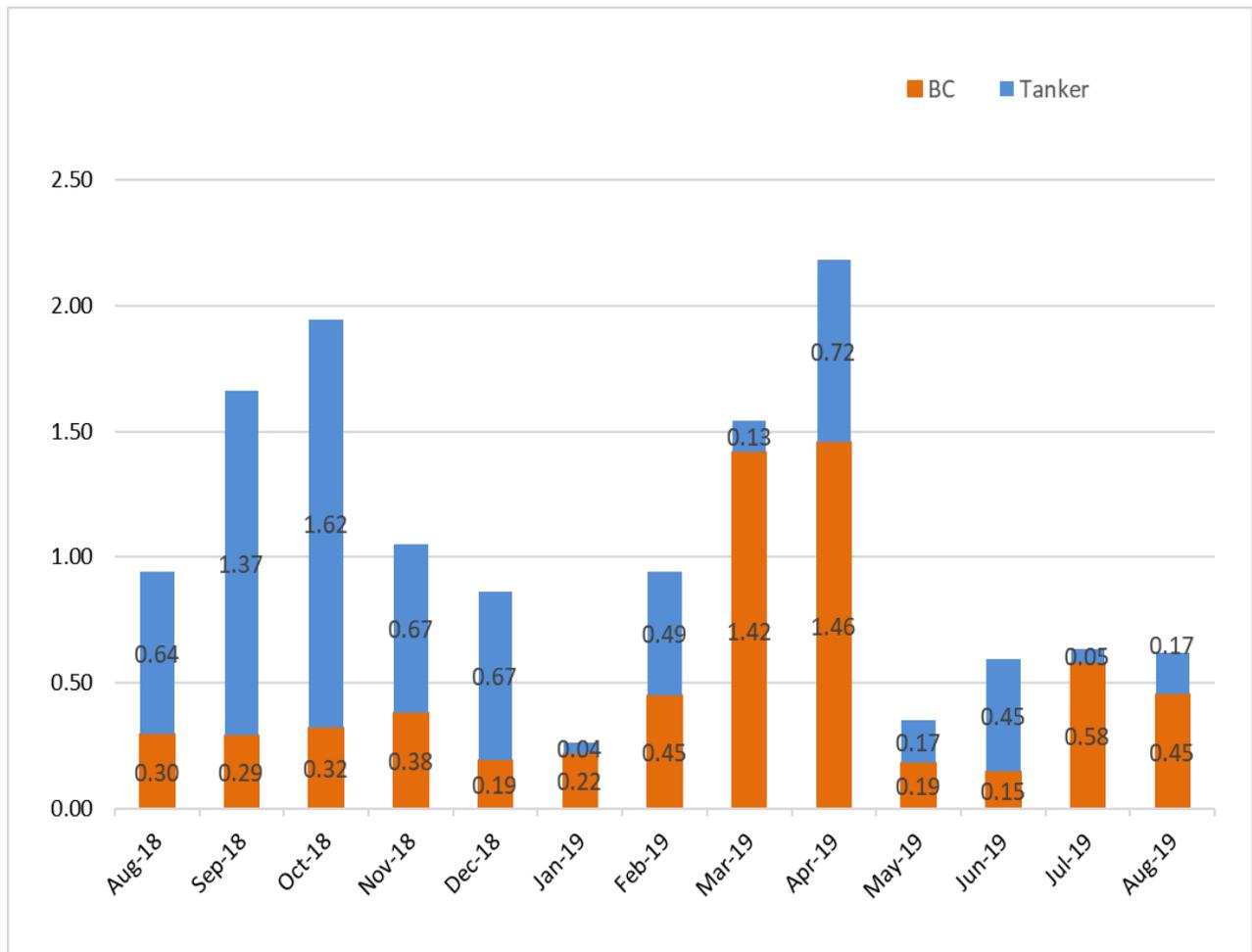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8 월		2019 년 8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2.22	10.6%	53	27.2%	0.64	10	0.17	-73.9%	5	-50.0%
BC	4.20	112	4.91	116.9%	80	71.4%	0.30	10	0.45	52.3%	9	-1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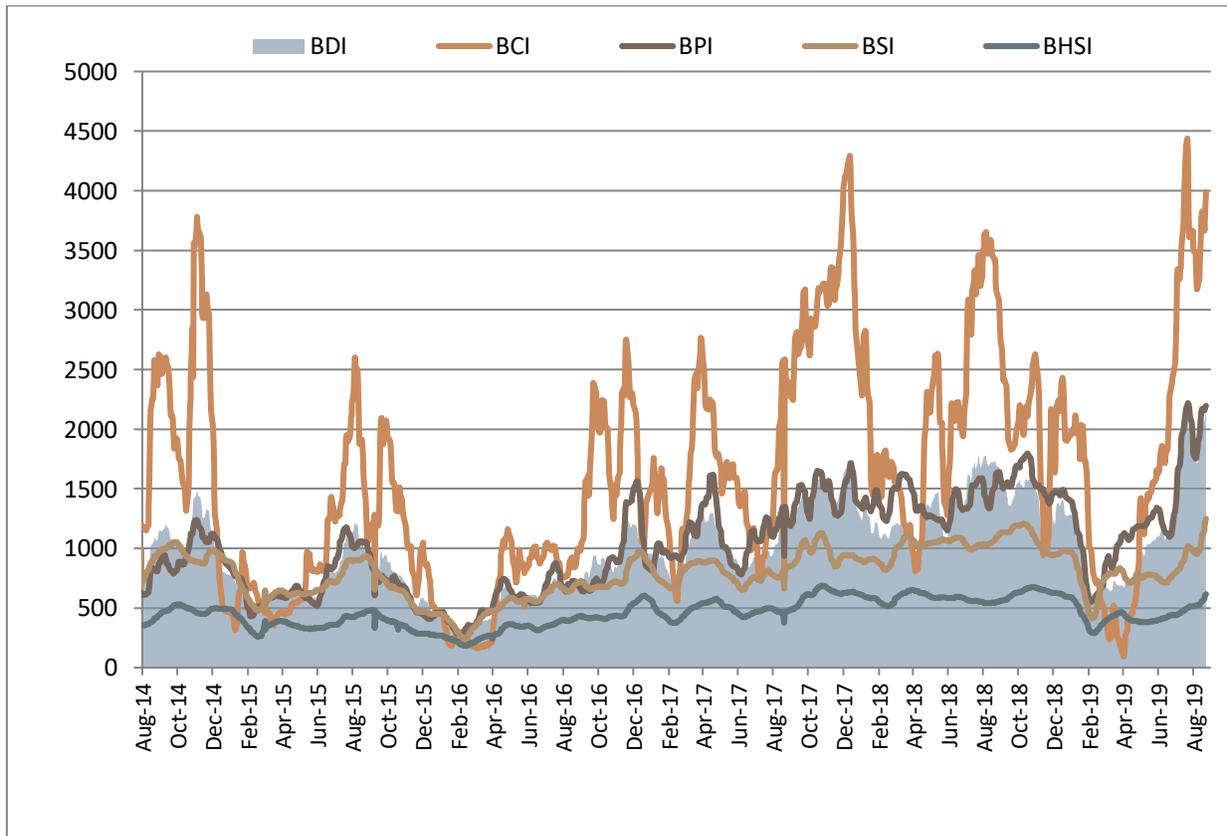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ATLANTIC MERCHANT (ore carrier)	238,818	36,280	1992	JAPAN	B&W	405	Full subconti delivery option, incl 907t IFO+378t MGO
CONT	APL KOREA	66,520	24,248	1995	KOREA	B&W	380	AS IS Colombo, Green recycling
CONT	APL SINGAPORE	66,520	24,250	1995	KOREA	B&W	380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8-23	2019-08-1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2168	2088	▲ 80.00	2191	290
BCI	3991	3826	▲ 165.00	4438	92
BPI	2196	2169	▲ 27.00	2219	282
BSI	1249	1118	▲ 131.00	1249	243
BHSI	619	560	▲ 59.00	69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86.50	▲32.50	297.50	▲13.50	307.50	▲14.50
IFO180	410.50	▲32.50	329.50	▲16.50	363.00	▲15.50
MGO	573.00	▼-0.50	543.50	▲2.50	593.00	▲3.00
LSMGO	571.00	▼-0.50	543.00	▼-2.50	-	-

❖기준일 : 8 월 23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8-23	2019-08-16	CHANGE
미국 달러	1205.10	1211.70	▼-6.60
일본 엔(100)	1131.92	1141.55	▼-9.63
유로	1335.43	1346.32	▼-10.89
중국 위안	170.23	172.31	▼-2.08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지소미아 (GSOMI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 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 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 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관련기사 " 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VI. STL NEWS & INFORMATION

그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9.08.27]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